

사회

# 교총까지 “정부 교육정책 반대”

## 교장 공모제 확대 등 반발... 대규모 서명운동 돌입

### 광주·전남 등 전국 16만명 대상... 파장 클 듯

광주·전남지역 교원 30% 이상이 소속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교조 회원 명단 공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당 부분 동조해 온 교총마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6월 전교조의 시국선언 직후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연명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상향해서 향후 규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총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까지 광주 3848명, 전남 8044명 등 광주·전남 1만1892명을 비롯한 전국

16만여명의 교총 가입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현안해결 촉구 긴급 동의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3만7000여명의 전체 교원 중 32% (1만1892명)가 교총 회원이다. 교총은 지난 15일 광주·전남 등 전국 학교 분회로 동의서를 보내 우편과 팩스, 교총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

교총의 이번 정부 정책 반대 서명 운동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육비리에 편승한 교장공모제 확대,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각종 교육 정책이 남발하면서 잡무 증가는 물론 교원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긴급 동의 과제로 ▲확실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 공모제 10% 이내 제한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 활용 국한 ▲성

과금제도 개선 ▲교원업무·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약속 이행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연 4회로 의무화된 수업공개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올해부터 50%로 확대되는 교장공모제도 교원의 신뢰보호와 학교의 선거 정치화를 막기 위해 10%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별 평가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올해부터 50~70%까지 늘어나는 교사에 대한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물에 대해서도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30~5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과부가 학교별 평가실적 기준으로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 ▲진단평가 ▲공개수업 성과 등을 제시함에 따라 낙후지역 학교 기피와 지난해 점수 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총에 가입한 광주 A교 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 교원들이 1947년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옹호·확대 등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가입교원이 16만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추는 친정부 성향의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교육계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와 교과부는 교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야 할 것”이라면서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순천에 천안함 희생장병 분향소

## 시·도민 추모 발길

### 29일 영결식까지 운영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시·도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는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9일은 오후 6시)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광주시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청사 1층 시민홀에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광주시 합동분향소에는 시청 총무과 소속 직원 10여명이 지키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첫날에만 수 백명의 시민들이 찾아 헌화·분향하고, 희생 장병의 명복을 빌었다. 또 육군 제31사단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순천시 연향동 조은프라자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순천시 분향소에는 해군 제3함대 소속 영관급 장교 4명

이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첫날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등 공무원과 시민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합동 분향소 한 쪽 벽면에는 조문객들이 적은 ‘고인의 명복을 빌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해군 아저씨들이 부디 천국에서 쉬고 계시길 바란다’는 등의 추모글이 적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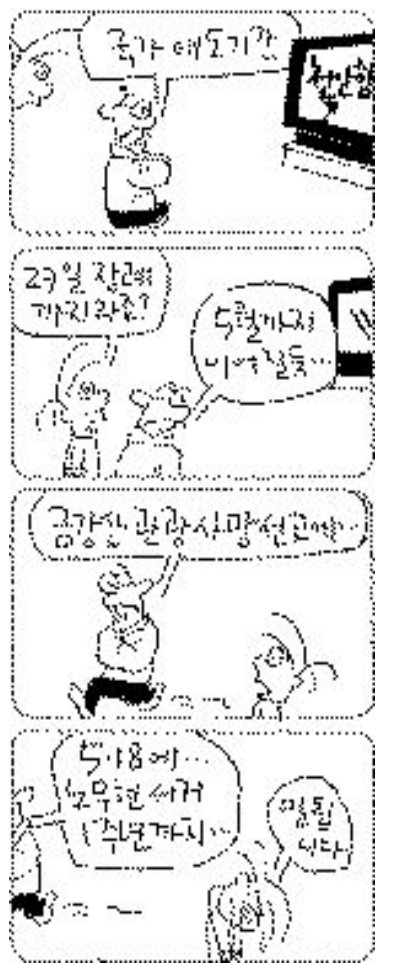
고(故) 이상민 병장의 모교인 순천제일고등학교는 26일 교내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재학생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광주시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정승현(33·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사진을 보니, 새삼 눈물이 난다”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나원침 (8095) 김장두



### 요금시비 택시기사 폭행치사

여수경찰은 25일 요금 시비 끝에 60대 택시 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전남 모 우체국 계약직 직원 정모(2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밤 11시20분께 여수시 학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이모(65)씨와 요금 문제를 놓고 승강기를 벌이다 이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다른 남자와 모텔에” 동성애자 폭행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을 알고 쫓아가 애인과 주먹다짐을 한 40대 남성 동성애자들이 나란히 경찰서행.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동성애자인 김모(48·전북 남원시)씨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T모텔에서 남자 애인 이모(44·나주시 용산동)씨와 모텔 끝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모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이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나 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에서 “14년간 사귀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참을 수 없었다”며 상처를 호소.

/김철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경찰 물같이 인사 예고

### 유형업소 밀집 서부경찰 타깃... 직원들 등요

광주경찰이 최근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비리 연루에 따라 대대적인 ‘물같이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최근 각 경찰서 형사과장·수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 재산을 위한 대규모 인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광주 경찰의 위상이 각종 비리 사건으로 곤두박질치자 재신 차원의 물같이 인사를 위한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우선 서부경찰 형·수사과 소속 경찰관 중 서부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직원을 전보할 계획이다. 직급과 물같이 인사 폭은 검토중이다. 서부경찰 직원 수는 모두 561명으로 경위급 이하 직원 수만 400여명이다.

광주경찰이 서부경찰 직원들을 물같이 인사의 주 타깃으로 정한 이유

는 이 지역이 유형업소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부서 한 직원이 업무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명(서부경찰 5명, 광안경찰 3명, 광주경찰청 2명 등)의 비리 경찰관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대규모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면서 서부경찰은 물론 각 경찰서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서부경찰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비리 때문에 경찰 전체가 비난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설치된 천안함 침몰사고의 희생 장병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천안함 46용사’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진도 추락 링스헬기서 임호수 중사 시신 발견

지난 15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다 추락한 해군 제3함대 소속 링스헬기 내에서 실종자 임호수(33) 중사의 시신이 발견됐다. 25일 3함대에 따르면 해군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남쪽 10km 인근의 해저

37m 지점에 추락한 링스헬기의 동체 광양함으로 인양해 내부에 있던 실종자 임 중사의 시신을 확인했다.

이로써 링스헬기 추락사고 사망자는 사고 직후에 숨진 채 발견된 권태하(32) 대위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실종자인 홍승우(25) 중위와 노수연(31) 중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故) 임 중사는 지난 1998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 173기로 임관한 뒤 6함공전단, 3함대 항공지원대 등을 거쳤다. 임 중사의 시신은 권 대위의 시신이 안치돼있는 함평 국군병원에 옮겨졌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네가 피해라” 서로 버티다 ‘쌍’

### 여수 선박 충돌사고 선장 2명 등 셋 입건

여수해양경찰은 25일 운항 부주의로 선박 충돌사고를 낸 중국선적 3만5000t급 화물선 ‘정항호’ 선장 왕모(39)씨와 부산선적 770t급 화물선 ‘해급퍼시픽호’ 선장 천모(58)씨 등 3명을 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일 밤 10시15분께 석탄 6만5412t을 실은 정항호를 운항하던 중 여수시 백도 남동쪽 16km 해상에 서 전방에서 오던 해급퍼시픽호

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왼쪽 중앙부분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씨는 울산항에서 아스팔트 유 1100t을 싣고 제주도도 향했다가 마주친 정항호가 피해갈 것으로 판단, 속력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신제품** NAVER 주소(이)대산프리모

SBS·KBC 『사람세상 방영』

**가발**

**초슬림!!** 각 **50만원~**

스킬과 망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 ※여성무모(無毛)전화 인종화OK!
- ※최상 두피합물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E-mail: daesangabal.co.kr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0-9955

大山프리모가발

**무인텔 매각공고**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특장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010-5614-1126

제 3 종 (자동차 대인 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직업상담사**

개강 **5월 3일** 국비지원 고용보험환급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상담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